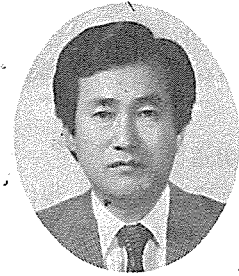


# 1 期建築士研修教育受講記

## 三日間の 教訓

安 箕 泰



### 가벼운興奮속의秩序

11月21日參加하라는 教育通知書를 받고 事務室 日程을 훑어보니 特別한 일이 없어 마음이 놓인다.

그러나 하루전날 速達郵便으로 서울支部로 부터 11月 7日로 日程이 바뀌었다는 文書를 받고 協會에 알아보니 急作한 事情으로 教育日程이 變更되었다.

매도 먼저 말하는 자가 나왔다는 俗言도 있듯이 이왕 教育에 임할 바에야 名譽롭게 修了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事務室 職員들에게 9日 까지의 業務를 指示해 놓았다.

教育場인 建設研究所는 平時 數次訪問 한바있어 正確한 位置는 알고 있었으나 大入了備考査日과 같은날이기에 交通便을 留意하여 正時에 到着할 수 있었다.

所定樣式의 入所節次를 마치고 知面인 會員間 반가운 人事를 나누면서 教育內容의 意見을 주고 받는다. 大部分의 會員들은 學校教育 以後 成人教育은 別로機會가 없었을줄 안다. 새마을教育 民防衛教育 程度였을것이다. 그러나 이번 教育은 專門人 으로서의 關係法에 依하여 計劃된 所定の 教育이며 試驗(評價)을 치룬다는것과 1, 2, 3 等の 各其 해당된 賞까지 있다니 어떠한식의 講義이며 어떤 方法으로 試驗을 치룰것인지 궁금하다.

準備關係인지 予定時間보다 약간 지체되는듯 하더니 講堂에 集合하라는 말이 전해지자 가벼운 흥분속에 질서 있는 움직임을 엿볼수 있다.

集合된 會員들을 둘러보니 協會 登錄順이어서 그런지 平均年令이 50을 훨씬 넘는것 같다. 모두 建築界에서 나름대로의 獻身과功績의 자취가 역역히 보인다. 白髮과주름살이 無形의 훈장인듯 생각해 하는 기라성같은 元老 大家들 틈에 끼여 不惑의 本人으로서는 스스로 人生을 反省해보며 使命感마저 들게 한다.

### 入所式과 教育

式順에 依하여 國民儀禮와 建設部長官의 叱사가 있었으며 훈련부로부터 教育에 對한 說明이 있은후 式이 끝났다. 四節까지 부른 愛国歌棒唱은 우렁차면서도 엄숙하여 감동적이었다. 攄棒

教課日程에 따라 첫 時間은 建築法과 建築士法을 建設部 金英철 課長의 講義로 始作되었다. 이 과목은 改正된 法令 및 規則에 對한 內容을 解説하였으며 많은 궁금증을 풀수있는 좋은 기회였다. 講義途中 學生長(姜會長)의 傳言인즉 教材準備가 되지않아 이번 1期生은 教材없이 受講해야 할 것 같다는 說明이다. 受講者들로서는 教材가 없애 負擔스러웠으나 그런대로 뜻있는 첫 時間을 보냈다.

### 教課日程을 적어 보던

- 第1日 1. 建築法 및 建築士法 建設部 建築課長 金英철  
2. 建築意匠 漢陽大教授 朴學在
- 第2日 1. 古建築(韓國建築) 會員(前會長) 張起仁  
2. 建築技法 漢陽大教授 金眞一  
3. 消防法 計劃內務部消防局  
4. 外國建築 弘益大教授 尹道根
- 第3日 1. 評價(試驗)  
2. 特講 東國大教授 민병천  
3. 綜合討論 및 여론조사  
4. 修了式

以上이 教課日程이며

講義內容을 요약해 보면,

○ 建築法 및 建築士法 建設部 金英철 과장 (省略)

○ 建築意匠 (朴學在 在教授)

- 1. 建築表現에 있어서의 모방과 形式
- 2. 建築內容의 象徴의 表現
- 3. 建築表現의 錯覺
- 4. 建築의 比例論

以上講義內容中 「建築內容의 象徴의 表現」에 對한 것을 實例를 들어 說明하였으며 弟子인 本人으로서는 오랫동안 先生의 持論을 通하여 建築哲學을 들을수 있었다.

○ 古建築(張起仁)

唯一하게 教材가 準備된 科目이다.

- 1. 韓國建築의 쇠서리 部材의 맞춤 解説에서 翼工 화반운공, 소로, 出目等
- 2. 周尺 영조척等 3. 年代別 韓國建築의 解説
- 4. 근, 卮, 꽃살等 窓살,

大略 以上과 같은 講義였으며 흔히 古建築을 論할때 西洋建築을 들먹이며 아는척 하는 本人으로서는 南大門 東大門의 年代差異 조차 몰랐던것을 內心부끄럽게 愧우친다. 不過 80分의 講義로서 古建築을 對할때 어느 一部分이나마 關心있게 觀察할 수 있게된것을 큰수확이 많을수없다.

○ 建築計劃(金眞一 教授)

人間이 必要한 땅의 面積은? 톨스토이 寓話를 引用하여 展開되는 講義는 2 m<sup>2</sup>의 땅의 面積이 算出된다.

- 1. 建築計劃의 目的과 手投
- 2. 學校教室의 算出의 方法論
- 3. 尺度에 對한 概念 (CGS單位~地球基準과 尺-人體基準) 等等

金先生特有의 論理展開와 斷言은 수차에 걸친 講演을

通하여 또한번 強하게 느껴진다. 余談 이지만 에게人間 必要한 땅의 面積 얼마이며 그기준을 算出하라. 혹시 이러한 試驗問題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會員間的 농담도 오고간다.

### ○外国建築(伊道根教授)

建築理論과 外国建築物 主로 現代建築(1950. 60. 70年代)을 슬라이드를 通하여 解説을 하였다.

1. 建築이란 : 目的, 容間
2. 建築의 規定 : 人爲的要素 社会的要素  
                  自然的要素 艺术的要素  
  工学(技術)的要素
3. 比例 : 1) 正整比論 2) 黃金比論 3) 動的均整論  
          4) 피보나치級數論 5) Module
4. 構成

畫面을 通한 現代建築의 흐름은 受講者의 感覺 나뉠대로 判斷이 될것 같다.

大略 以上과같은 講義內容이었으며 學術的 理論이나 論理的 思考에 따라 다분이 講師의 主觀에 依하여 表現 또는 傳達方法에 따라 受講者의 主觀과 交叉되는부분이 있었음을 느낀다.

會員들의 受講姿勢는 可히 模範的 이라 할수 있겠다. 時間觀念은 基本的인 것이여서 더 말할 나위없고 老年의 會員들은 眞摯 하다못해 순진한 學童들과도 같아보였다. 그러다가도 實務에 關係되는 問題에 이르러서는 날카로우면서도 深度있는 質問이 쏟아져 나온다. 一部會員은 지나친 念慮로 빨리 結末한 問題를 두세번 반복質問 하여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으며 빈축을 사기도 했다.

休息時間에 指定된 場所에서 흡연을 하면서 주고 받는 雜談속에도 뜻있는 말이 오간다. 話題中の 하나는 張起仁 先生은 先生이면서 學生이나 가르치면서 배우는 立場이여서 試驗을 치르면 1等은 따놓은게 아니겠느냐는 말은 同年輩會員들의 농담으로 한바탕 웃음바다가 된다.

그런가하면 체조시간에 七旬高令인 손민수會員의 參與는 대단한 熱意였다. 數十年來에 처음하는 회원도 더러는 있겠지만 오른쪽을 向해야 할것을 왼쪽으로, 팔을 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허리를 굽히고 그야말로 各樣 各色이다. 이 光景을 二층 室內에서 내려다보는 建設研究所의 젊은직원들이, 會員들이 타고온 자동차의 운전사들이 활짝웃는 얼굴을 지켜본다.

이 사람들은 一絲不亂한 學生들의 마스크게임보다 더 뜻있게 느꼈으리라. 이어져 不調和 속의 아름다움이 많이 겠는가. 老年의 會員들은 參與의 보람을 더욱 크게 느꼈으리라.

첫날은 研究所의 基本食品 으로하고 둘째날은 서울 支部 金萬盛 支部長의 簡食提供이 있었고 마지막날엔 복지회 李奉魯 會長이 中食代 및 飲料水를 負擔하고 支部長 역시 간식을 나누어 주어 기쁜 마음으로 어느 篤志家가 修了後 대포 선심이 있지 않을까 하였으나 그런 篤志家

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번 1期生의 學生長은 姜奉辰會長이 맡았다. 學生들의 代辯 訓練部에 對한 建議 講師의 人事紹介等 教課進行 및 全般的인 教育過程에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매번 發言中 너무 자세하여 다소 지루할 程度였다. 會員들이 熱誠들이고 진지한 受講態度에 感動했음인지 學生長은 늘 滿足한 表情이었다. 그러나 蛇画添足の 禍가 미칠줄은 學生長은 勿論 會員들도 想像치도 못했다.

會員들이 關心事인 試驗을 念慮한바 너무 誠意 있고 秩序있는 會員 여러분은 模範的이고 한사람도 落伍없이 教育을 마칠수 있다는 이 自体만으로도 修了의 資格은 充分하니 너무 試驗에 신경을 쓰지않아도 좋치않겠느냐는 內容의 言質이었다.

그 結果는 너무 悲慘하였으니 蛇画添足の 禍가 앞일수 없다. 다만 學生長의 言質은 善意的 表現인 것만은 確實하다.

### 試驗(評價)

協會에서 보내준 文書에는 1, 2, 3 등의 賞이 있는데 建設部長官賞, 建設研究所長賞, 協會長賞 이 各其 해당되게 授與한다고했다. 會員들의 話題는 試驗을 어떠한 方法으로 본다는등 누가 賞을 타겠느냐니 話題의 뜻을 피운다.

첫 講義時間에 學生長이 教材準備가 되지않았다는 말이 있었으므로 教課에 따라 熱心히 筆記하는 會員 傾聽하는 會員 各其 나뉠대로 受講 하였으리라.

첫날 教課를 마치고 李春相會員과 歸家中 簡單히 한잔 하자고하여 몇 巡杯中 自然히 教育에 關한것이 話題가 될 수밖에 없었다. 李會員이 말하기를 집에서 나올때 自己 부인이 이왕이면 1等を 하라고 했는데 教材가 없으니 方向을 잡을수 없다면 집에가서 徹夜해서 工夫를 할려 했는데 포기해야겠다고 농담調다. 其實 本人도 같은 生覺이였었다고 말하면서 醉中 豪快하게 웃고 말았다.

11月9日 9時30分 심판의 時間은 다달았다.

深刻한 表情은 別로 없었지만 다소 緊張感이 도는듯 하다 약 30분이 지체되면서 答案紙 試驗問題紙가 차 례로 돌려진다. 그러나 答案紙 作成要領, 說明 및 質問等 으로 상당한 時間이 경과되었다. 問題紙를 들여다보니 만만치 않은 問題들이다. 큰일났 구나하는 生覺이 문득난다.

試驗을 마친후 나뉠대로 整理해 본다.

1. 印刷不良으로 問題紙읽기가 어렵다.
2. 答案紙 作成要領 說明으로 因한 時間소모로 解答時間의 負擔感.
3. 一部試驗問題가 長文이여서 理解 하기 爲하여서는 再三 反覆하여 精讀해야 됨으로 所要時間에 對한 강박감.
4. 客觀式 試驗은 함정이 많으므로 經驗이 없는 사람은 正答을 알면서도 틀린것을 擇할 境遇.
5. 試驗問題中 應試者가 概念의 差異로 正答이 아닌 자기주관에 答을 擇할 경우
6. 全般的으로 問題紙를 理解하기위하여 3回以上 精讀한다고 볼때 問題量의 過多.

以上에 言及한것은 오히려 枝葉的인것 들이며 오히려 가장 重要한것은 評價라는 낱말에 있다.

評價가 試驗인지 試驗이 評價인지 分間조차 못했으며 試驗이 있다는것은 알고 있었지만 試驗의 性格 方法 結果의 重要性 等은 一言半句 言及이 없이 秘藏되었던것이 큰 蹉跌을 낳은것이다.

秘藏한 物件도 아닐진데 依例히 아는것이러니 傳達이 않된 것이 겠지만 이 評價라는 뜻을 가볍게 보았다가 敗家亡身한 꼴이 되었다.

너무 믿고 熱意와 努力만으로 될줄알았던 어진 學生들은 마침 가을철을 맞아 秋風落葉처럼 떨어져나갔다.

이 落葉들은 된者나 안된者 떨어져진者나 붙은者, 이긴者나 진者 같은 落葉속에서 같은 心情이었을게다.

試驗을 마친후 教課時間에 따라 特溝中食 綜合討論 與論調査 等の 順으로 教課程을 마쳐 나갔다.

修了式을 앞둔 中食은 유난히도 기다려진다. 음식맛에 기대되는게 아니라 3日間의 教育을 마치고 卒業(修了)을 몇時間 앞둔 상쾌한 마음에서 일것이다.

부지런히 食堂을 向했으나 配食口앞에 當到해보니 다섯번째가 아닌가 밥먹는데 1等을 하려했는데 朴成圭會員에게 前席을 빼앗기고 만것이다 可히 食堂長? 감이다.

中食後 休息時間에 滿点이 있다는 風聞이 나온다. 滿点を 맞을 수 있을까? 滿점을 맞은 사람이 있다면 이는 分明 自己實力 十ノ日辰이 좋았든가 辛運의 女神이 보살렸으리라.

修了式의 부분마음을 안고 기다렸으나 무슨 事情인지 늦어진다. 그사이 建設部 김창권 局長이 登壇하여 誠意것 教育에 임해주어서 고맙다는 인사말과 評價에 對한 說明을 한다. 試驗結果에 言及하면서 小數이지만 一部會員은 優秀한 成績이 있으며 滿点도 있는 反面 半數會員이 基準點數未達이니 未達者는 修了証을 줄수없으며 再教育을 받아야 한다는 斷言이다.

學生長의 進言도 있었으나 法에 依한 教育이니 만큼 評價에 依하여 決定되어야 한다고 再次 못을 박으면서, 教材, 講義等の 問題點도 있겠으나 一部會員의 成績이 優秀한 것으로 보아서 꼭 그런것만은 아니지 않겠느냐는 說明과 이러한 結果에 對하여 憤感의 뜻을 表明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一瞬 講堂內에는 暗雲이 깔리기 始作했다.

修了式이 宣言된다.

當落半半의 會員들, 반은 글자그대로 修了요, 반은 修了式의 리허설로 끝날것인지, 그누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아는사람은 아무도없다.

國旗에 對한 敬禮에 이어 愛國歌棒唱이 시작되었다.

아! 이게 웬일인가,

그렇게 우렁차게 부르던 入所式때의 愛國歌를 當落의 공포감에서 목이메였는지 제대로 부르지 못하는게아닌가. 不和音속에서 1節까지 불렀다.

남산위에 저 소나무…… 休息時間에 修了式 때에는 좀

더 잘볼러보자고 외치면서 혹시 모르는 會員이 있을까봐 3, 4節의 歌사를 두세번 불러주었던 李奉魯會員이 머리속에 스쳐간다.

가을하늘 공활한데…… 音程이 잡혀간다. 講堂을 中心으로 9時方向에 있는 金源安會員, 11時方向의 李奉魯會員의 목소리가 우렁차게 들려온다. 3時方向의 本人도 한 音程 높혔다. 마음이 갈아안는다.

暗雲은 거쳐갔으며 공포감도 사라져갔다.

새로운 出發을 다짐 하려는지 굳게 다문 입술은 굳은 意志를 나타내는듯 보였다.

式順에 따라 修了証이 授與된다. 學生代表로 朴來運會員이 全會員것을 맡았다.

이어 施賞順序이다. 1等 金萬盛支部長 2等 姜奉辰會長 3等 宋학祚會員이 차례로 呼名된다.

幸運의 女神은 金萬盛支部長에게 그랑프리를 안겨주었다. 그 어려운 與件속에서 滿点을 할수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驚愕, 感歎, 祝賀, 暖間的으로 엇갈리는 表情속을 堂堂이 헤쳐나가면서 建設部長官賞을 받는다. 잠시 瞑想에 잠겨본다.

너무나 조용히 제 자리만 지키고 있더니 남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길래 大賞을 그것도 滿点的 榮光으로 차지했을까? 果然 金支部長(新任會長)은 幸運兒였으며 野望의 사나이였다.

姜奉辰會長(學生長)은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教課進行에 많은 手苦를 했다.

一般受講生은 專念하여 受講했는데도 秋風落葉인데 大事를 이끌고 나가면서 어느틈에 實力을 쌓았는지 次席을 차지한 것을 보면 그분의 手苦의 實力을 높이 平衡(試驗의 뜻이 않임)하면서 다시한번 敬嘆해 마지않는다.

試驗결과로 自業自得 이라할까 할말은 없으나 理想的인 꿈을 꾸어본다면 受覺者를 祝賀해 주면서 全受講生이 名譽롭게 修了했으면 얼마나 多幸일까 生覺하면서 富益 富貧益貧의 確實한 뜻은 잘 모르겠지만 이 경우에 왜 이 말이 떠오르는지 모르겠다.

建設部 김창권 局長은 이번 教育의 큰 目的中的의 하나는 精神教育에 있다고 強調했다.

受講中 會員들의 動態로보아 어느 一面이나 目的한 精神教育의 成果를 達成했다고 느꼈다. 修了式後 修了証을 나누어 받으면서 修了証을 받은會員은 못받는會員의 눈치를보면서 제면적은 미소를 머무면서 위로한다. 못받은會員의 表情을 어찌 다 表現하라 却說하면서 염려스러운 것은 教育의 成果가 무너지지나 않나 念慮해 본다.

三日間의 教育은 끝났다.

不過三日間에 벌어진 일들이지만 배운것도 많았고 느낀것도 많았고 反省해야 할 것도 많았다. 많은 教訓을 던져준 三日이었다. 늘 마음속에 간직하는 生覺이지만 每事를 元亨利貞의 順理로 行하였으면 하고 瞑想에 잠긴다.

同和建築研究所 代表